

매력 넘치는 전남 산림휴양시설에 관광객 몰린다



전남에 자리한 매력 넘치는 휴양림과 치유의 숲, 명품숲길 등 산림휴양시설이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전국에서 휴양림 100만여 명이 전남지역 산림휴양시설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에는 청정 휴양림 15곳, 치유의 숲 8곳,

숲속야영장 1곳, 걷고 싶은 명품숲길 12곳(48km 구간)이 운영되고 있다.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는 자연휴양림 중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사천)은 치유의 숲과 목재문화체험장, 생태숲 등 산림휴양시설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 보성 제암산 자연휴양림은 질라인, 모험(어

휴양림·치유의숲·명품숲길 등 36개 산림휴양시설 인기 도, 캠핑문화 확산 대응...50억 투입 '숲속 야영장 확충'

드벤처)시설 등 다양한 산림레포츠 체험시설과 함께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다. 여수 봉황산·신안 다도해·완도수목원 자연휴양림 3곳은 전남의 아름다운 바다와 숲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이색적이다. 휴양림 숙박시설 이용 희망자는 '숲나들-e 시스템'(www.foresttrip.go.kr)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치유의숲은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조성된 산림으로,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찾고 싶은 휴양지로 각광 받고 있다. 장흥 정남진 치유의 숲은 울창한 편백숲에서 피톤치드 향기와 함께 토틀 산책로 맨발 걷기, 명상·체조, 아로마 오일 방향제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근 캠핑문화 확산으로 주목받는 숲속야영

장은 보성 윤제림에 1곳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는 캠핑 수요 증가에 대응해 올해 50억원을 들여 광양·순천·화순·무안·완도·장성 지역 등에 숲속 야영장을 확충할 계획이다. 전남에는 등산로, 둘레길 등 숲길 4442km가 조성돼 있으며, 전남의 역사문화 자원과 숲을 연계한 산림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중 48km를 걷고 싶은 명품숲길로 지정했다. 진도 첩첩산 난대숲길, 해남 두류산 장춘천년숲길, 목포 고하도 해변숲길, 구례 천은사 수변숲길 등이 대표적이다. 김재광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늘어나는 산림휴양객을 위해 산림서비스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며 "일상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전남의 숲에서 활력을 재충전 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대통령 연임 허용해야 하나' 전남선관위 고교생 토론회

내달 22일 온라인 예선전·27일 본선 토론

전남선거방송 토론회위원회는 전남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미래 유권자의 열린 토론문화 확산과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2회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예선전과 대면 본선으로 운영한다. 9월 22일 온라인 예선전을 통해 본선 진출 상위 4개 팀을 선발하고, 9월 27일 LG헬로비전 스튜디오에서 본선 경기를 한다. 대상과 금상을 수상한 2개 팀에게는 중앙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열린토론회(고등학생부)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2인 1팀을 구성해 9월 16일까지 참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전남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전남선관위 홍보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오유나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형 방제드론으로

녹조 발생 선제 대응

영산호·영암호·금호호 녹조제거제 100kg 살포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영산호, 영암호, 금호호에 대형 방제드론을 이용해 녹조 제거제를 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담수호에는 최근 남부지방에 지속된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과 극심한 가뭄 등으로 물 순환이 어려워 지난 주 녹조 발생 전조증상이 확인됐다. 영산강사업단은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녹조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방제 드론을 통해 친환경 녹조 제거제 100kg을 살포했다. 또 주 2-3회 간격으로 주기적인 녹조 예방 등 담수호 전반에 걸친 수질관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김신환 단장은 "담수호 3개소의 수질개선을 위해 물 순환 및 녹조 제거제 살포 등 사후적 대응보다는 선제적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광주시 "긴급생활지원금 받아주세요"...이달 19일 마감

12월까지 광주 전역서 사용 가능

광주시는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고 소비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시행중인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오는 19일 마감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일까지 긴급생활지원금 1차 지급을 마무리했다. 1차 지급 누락·신규 책정 인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2차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은 급여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기초생활 생계·의료 수급자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주거·교육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 등 1인 가구 30만 원, 4인 가구에는 75만 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성립 전 예산 집행·한시인력 채용·광주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한 선불카드

제작 등의 적극행정을 펼쳐 지난 6월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지급 대상가구 중 98%에 달하는 6만7000여 가구에 313억 원을 지급했다. 오는 19일 사업 종료와 더불어 카드 교부 마감되는 만큼 아직 카드를 수령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문자 발송 등의 안내를 통해 카드 수령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은 무기명 선불형 카

드로 지급되며, 대형마트 등 광주 지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취지를 고려, 유희·사행 등 일부사용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카드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한이 지난 이후에는 잔액 이 소멸돼 사용이 불가능하다. 손목수 광주시 복지정책과장은 "아직 선불카드를 수령하지 않은 시민은 19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해 달라"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중국 연길에 전남 농수산물 '상설 판매장' 개장

믿을 수 있는 고품질 식품으로 현지 소비자 집중 공략

전남도는 최근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소재한 만달광장 쇼핑몰에 '전남 농수산물상설 판매장' 중국 5호점을 개장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상설 판매장 운영은 현지 무역전문법인 상해건화은국제무역유한공사가 맡았다. 현지 소비자와 한인 동포를 집중 공략해 연간 50만 달러 이상 수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판매 품목은 전남 특산품인 친환경 유자가공식품, 조미김, 매실청 등을 비롯해 오크누룽지, 소주, 작두콩차, 쌀과자 등 도내 15개 기업 29개 제품이다. 이날 개장식에는 이인걸 상해건화은국제무

역유한공사 대표와 김영심 전남도 중국사무소 소장, 웬센후이 길림성 외판아시아처장, 천추량주 길림성 외판부주임, 지역 언론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들은 믿고 찾을 수 있는 한국산 농수산물 전용판매장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앞서 중국에 개설한 4개 상설 판매장을 통해 지난해 농수산물 수출액 200만 달러를 넘겨, 입점 기업이 매출 증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며 "앞으로 중국 주요 도시에 상설 판매장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한국연립진흥재단
Korea Pine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녹색에서 재탄생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보험료	급여비	비율
고소득층	240,833원	1,141,147원	1.7배
4분위	125,531원	78,147원	2.1배
3분위	78,147원	48,103원	2.7배
2분위	48,103원	26,697원	5.3배
저소득층	26,697원	-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국회연립 12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